**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고후 2:14)

 주님의 긍휼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과 기도를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초순에 한국에 적응하면서 무더웠던 여름의 힘들었던 기억은 요즘의 서늘한 가을의 기운에 가운데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검진 이후에 수술과 회복, 병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착한 혹이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27일 출국 계획으로 사역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위해 입국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인도하심과 다시 제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짧은 저의 근황과 기도해 주실제목들을 적습니다.

 6월 22일 거주비자 인터뷰만하고 28일 급히 나오게 되어 거주증 없이 가는데, 사역지 입국장에서 문제가 되지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해 사역계획서에 안식년을 분기별로 사역지와 본국을 오가며 보내고자 했던 계획대로 되어 2018년 사역을 위해 동역자님들의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걸음 한걸음을 걸으면서 온전히 성경 말씀과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인으로 사역지에서 뿌리를 내리는 영역에도 주의 보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의 고발로 인해 문화원은 본국 감사와 사역국가의 주의를 받으면서 철수한 사역자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서 주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립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부산의 셋째 여동생 집에서 침상에 누워만 있는 어머니를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는 동생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만날 기약으로 이 땅에서 헤어지는 먹먹한 제 마음을 주께 아룁니다.

 한국 일정에서도 만나지 못한 동역자님들께 죄송함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강건함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저를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평안을 전합니다.

 2017. 10. 24. 김에스더 드림